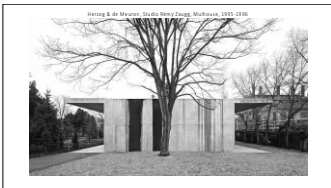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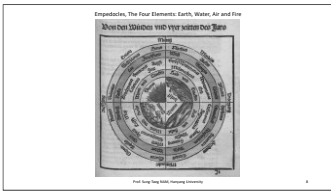


[두산아트스쿨: 미술] 새로운 건축 다시 이해하기: 오늘의 건축을 규명하다 (남성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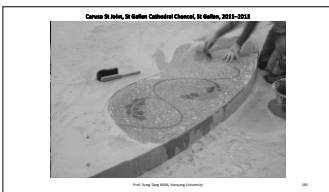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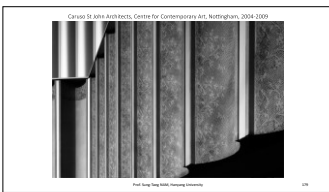
5/19 4강 분위기의 건축공간: 경험의 기억을 유발하다.

건축 예술이자 공간 예술인 건축은 재료와 공간을 매체로 삼아 “자신만의 질적 규범과 독립을 보장”하는 건축 영역의 “순수성”을 허용한다.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의 구현에 집중했던 지난 강의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간’과 관련해 ‘분위기’의 건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은 시각적 예술에 머무르지 않고서 촉각적, 공감각적 경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방문자를 둘러싸는 독특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며 그 속의 공간은 저마다의 기억과 감성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슬라이드 리스트



- Maurice Merleau-Ponty/모리스 메를로-퐁티,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인지 현상학: “공간은 나를 공간성의 중점 혹은 영도로 기준 삼는다. [...] 나는 그 속에 산다. 나는 그것에 싸여 있다. 모든 세계는 내 주위에 있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 Atmosphere, mood, ambiance, stimmung, 氣分: 분위기, 대기, 환경, 공기, 기운, 기분...
- Empedocles/엠페도클레스, *The Four Elements: Earth, Water, Air and Fire*/4 원소: 흙 (땅), 물, 공기, 불
- Joachim Beuckelaer/요아킴 베케라르 (c.1533-c.1574), *The Four Elements: Earth, Water, Air and Fire*, 1570
- James Turrell/제임스 터렐 (1943-), *Skyspace*/스카이스페이스, 2013
- Olafur Eliasson/올라푸 엘리아손 (1967-), *The Weather Project*, 2003, Tate Modern, London; *Rainbow assembly*, 2016, Leeum, Seoul
- Vitruvius/비트루비우스, *Fire and Hut*/불과 오두막, in *Ten Books of Architecture*/건축십서. Drawing by Cesariano/체사리아노의 그림 (1521)
- Gottfried Semper/고트프리트 켐퍼 (1803-1879), *Caribbean Hut*/카리브 오두막, 1851.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건축 4 요소
- William Morris & Philip Webb/윌리엄 모리스 (1834-1896) & 필립 웹 (1831-1915), *Red House*, Bexleyheath/레드하우스, 벅슬리히스, 1860
- Adolf Loos/아돌프 로스 (1870-1933), *Fireplace and Cladding*/벽난로와 피복
- Frank L. Wright/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1867-1959), *Fallingwater*/낙수장, 1935
- Le Corbusier/르 코르뷔지에 (1887-1965), *Appartement-Atelier*/아파트-아틀리에, 24 Rue Nungesser et Coli, Paris, 1931-1933
- Ludwig Mies van der Rohe/루드비히 미스 반 데 로헤 (1886-1969), *German Pavilion*, Barcelona/바르셀로나 독일 전시관, 1929; *Tugendhat House*, Brno/투겐트하트 주택, 브루노, 1929
- Philip Johnson/필립 존슨 (1906-2005), *Glass House*, New Canaan /유리주택, 뉴 캐년, 1949
- Mark Rothko/마크 로스코 (1903-1970): “작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 너머로 이동하는 것이다 [...].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 그 어떤 종류의 방식에서도 우리는 그 [그림] 내부 속에만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 Barnett Newman/바넷 뉴먼 (1905-1970): “이 전시회의 거대한 그림들은 매우 가까이서 감상하도록 그려졌다.”
- Diller Scofidio + Renfro/딜러 스키피디오 + 렌프로, The Blur Building, Yverdon-les-Bains/블러 빌딩, 이베르동-레-맹, 1998-2002
- Herzog & de Meuron/헤르조그 & 드 브룬, Naturbad Riehen, Natural Swimming Pool, Riehen/자연수영장, 리헨, 2007-2014; Studio Rémy Zaugg, Mulhouse/레미 조그 스튜디오, 물루즈, 1995-1996; Helvetia, Extension of Head Office, St. Gallen/헬베티아 본사 증축, 장크트 갈렌, 1989-2002; Allianz Arena, Munchen/알리안츠 축구장, 뮌헨, 2001-2005; St. Jakob Park Basel Football Stadium, Basel/장크트 자콥 축구장, 바젤, 1996-2002; Laban Dance Center, London/라반 댄스센터, 런던, 1997-2003; IKMZ BTU Cottbus/브란덴부르크 대학 미디어센터, 코트부스, Competition, 1993-2004
- Diener & Diener/디네어&디네어 (Roger Diener, 1950-), Novartis Campus Forum 3, Basel/노바티스 캠퍼스, 포럼 3, 바젤, 2002-2005; Swiss Re Next, Mythenquai, Zurich/스위스 보험 넥스트, 취리히, Competition, 2008-2017
- Miroslav Sik/미로슬라브 지크: “나는 현대 도시 속에 존재하는 대조들을 중화시키려 노력한다. [...] 양식/스타일들의 혼합을 통해 다채로운 것을 재연결하려고 노력한다. 즉 1940 년대와 1980 년대를 연결시키고, 하나의 동일한 전체 속에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면서 말이다.”
- Knapkiewicz & Fickert/Miller & Maranta/Miroslav Sik, *And Now the Ensemble!!!*/그리고 이제는 전체다 !!!, 2012
- Peter Zumthor/피터 줌토르 (1943-): “어떤 설계안을 작업할 때 나는,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또 찾으려는 건축과 결합시킬 어떤 이미지들, 분위기들에 의해 내가 이끌리도록 내버려 둔다.”; Atelier Zumthor, Haldenstein/아틀리에 줌토르, 할덴슈타인, 1986; Zumthor House/줌토르 주택, Haldenstein, 2005; Kunsthaus, Bregenz/쿤스트하우스, 브르겐츠, 1990-1997 (Olafur Eliasson with Gunther Vogt, *The Mediated Motion*, 2001); Serpentine Gallery Pavilion/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London, 2011; Swiss Pavilion, 2000 World’s Fair, Hanover/스위스 파빌리온 하노버, 1997-2000; Thermal Vals/발스 온천장, 1993-1996
- Miller & Maranta/밀레 & 마란타 (Quintus Miller, 1961- and Paola Maranta, 1959-), Mineral Bath & Spa, Samedan/사메단 온천장, 2009
- Valerio Olgiati/발레리오 올지아티 (1958-), House for a Musician, Scharans /음악가 집, 샤란스, 2007
- Caruso St John Architects (Adam Caruso, 1962- & Peter St John, 1959-): “다양한 우리 설계안들을 바라보면, 멀리서 감상할 수 있는 컴팩트한 스케일을 갖는다. 가까이 다가갈 때는 표면의 디테일에 사로잡힐 것이다. [...] 볼륨은 단순하나 매우 강렬한 표면 장식의 이슬람 건축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질적 특성이다.”; Centre for Contemporary Art, Nottingham/노팅햄 현대미술관, 2004-2009; Tate Britain, London/테이트 브리튼, 런던, 2007-2013; St Gallen Cathedral Chancel/장크트 갈렌 대성당 제단, 2011-2013